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중동전쟁 장기화 땀 4차 오일쇼크 현실화...대응 필요”

유가 급등·공급망 붕괴 동시 압박 에너지 자립도 낮은 한국 직격탄 환율 상승·물가 불안 확대 가능성 재생에너지·대체소재 등 기회 병존

“중동전쟁이 4월을 넘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유가 상승을 넘어 공급망 붕괴까지 동반한 ‘4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는 9일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 강연에서 ‘중동전쟁 이후 경제 전망’을 주제로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원유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이 구조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전쟁이 종료되더라도 정유·화학 설비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유가가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유 공급이 줄어들면 단순히 기름값 상승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플라스틱·섬유·화학제품 등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친다”며 “오일쇼크는 가격 문제가 아니라 생산과 공급자

체가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국가산단과 같은 석유화학 산업 기반 지역은 원료 수급 자질이 곧 생산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 상권과 고용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준다”며 “지역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 경제는 에너지 자립도가 낮고,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데다 GDP 대비 석유 의존도까지 높아 이번 충격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제 기저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한국은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구조”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환율 변수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그는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다”며 “이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국내 물가 불안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단순한 가격



9일 오후 광주 서구 치평동 브리브광주바이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4기 광남일보 드림리더 아카데미’에서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중동전쟁 이후 경제전망’을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상승을 넘어 ‘공급 부족’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요소수 사태처럼 가격이 아니라 물량 자체가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유 기반 원료가 줄어들면 식품·의류·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정치 변수도 경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김 교수는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이 핵심 과제가 되는 만큼 전쟁 장기화를 부담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며 “전쟁 전개 양상은 정치·외교 변수와 맞물려 예상보다 빠르게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단일 전망이 아닌 복수 시나리오에 기반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쟁의 종

료 시점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단기 지표와 장기화 두 가지 시나리오를 모두 가정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석유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재생에너지, 대체소재, 친환경 용기 산업 등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확대될 것이고 문제 속에서 기회를 읽는 전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전쟁 장기화 여부가 향후 글로벌 경제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았다. 김 교수는 “전쟁이 초기에 종료될 경우 금융시장 변동성에 그칠 수 있지만, 장기화될 경우 실물경제 전반으로 충격이 확산될 것”이라며 “지금은 판단보다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대용 기자 sdw0918@gwangnam.co.kr

교통사고 감소·사망자 줄이기로 ‘안전 전남’ 구축

도, 7개 유관기관 참여 교통안전 컨설팅 추진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도내 22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



전남도는 지난 2월부터 5차례에 걸쳐 도내 22개 시·군, 유관기관 등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을 통한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 ‘지역 맞춤형 교통안전 컨설팅’을 추진했다. 사진제공=전남도청

비중이 높은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단속·교육·홍보를 연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도·지방도 중심의 고속 주행 환경과 농기계 혼재 등 위험 요인을 고려해 지역별 맞춤형 저감 대책도 함께 도출할 예정이다. 컨설팅으로 도출된 결과는 각 시·군 교통정책에 즉각 반영되며, 도는 실질적 사

고 감소 효과를 거두도록 필요한 경우 도비 지원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그동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노인 보호구역 확대 지정,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을 강화했다. 경로당 등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과 교통법규 준수 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하며

교통안전 의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안상현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함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밀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맞춤형 대책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 수준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화순전남대병원 K-HOPE, 연구-치료 잇는 플랫폼 가동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협약 데이터 기반 치료 반응 예측 정밀의료기반 신약 적용 확대



화순전남대병원 K-HOPE 사업단은 최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화순전남대학교병원이 연구·임상시험·치료를 잇는 통합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화순전남대병원 K-HOPE 사업단은 최근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연구 성과를 임상시험과 신약 개발로 연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 임상시험으로, 병원이 보유한 환자 의료데이터와 연구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시험 설계 정확도를 높이는 방식이다. 환자별 치료 반응을 사전에 예측하고, 적합한 대상자 선별

에 활용한다. 통합 체계가 자리 잡으면 임상시험 성공률 향상과 신약 개발 과정의 시너지 효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자 맞춤형 치료 적용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K-HOPE(Korea-Hwasun Oncology

Precision Biomedicine & Experimental Trials)는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추진되는 한국형 암 특화 디지털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사업이다.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데이터 통합(Data Integration), 디지털 인체자원 은행 구축을 핵심축으로 연구와 임상시험

을 하나로 잇는 통합 시스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순전남대병원은 지난 20여년간 축적한 암 환자 중심 의료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예측 모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 데이터는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데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임상 연구 성과의 신약 개발 연계 강화, 임상시험 수행 인프라 및 운영체계 고도화, 데이터 기반 연구·임상 통합 플랫폼 구축, 정밀 의료 기반 신약 개발 지원 체계 확립 등 협력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조상희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장은 “이번 협력은 연구와 임상이 분절된 기존 구조를 넘어 환자 중심의 통합 연구·임상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 신약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밀의료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신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지난 8일 광양시 산단택지과가 나주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나주시청

나주시-광양시, 고향사랑기부로 상생협력 강화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위한 관광 홍보 연계

나주시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교차 기부와 관광 홍보를 연계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산단택지와 관계자들이 나주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양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나주시는 광양시 산단택지과를 초청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고 목사내야 등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기부 참여가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지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주=조희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함평군, 영농철 ‘일제 출장의 날’ 운영

생육관리 등 전문기술 안내



함평군이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에 나섰다. 9일 군에 따르면 오는 9월까지 월 2회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이 영농 현장에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고 농업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일제 출장의 날’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센터는 영농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수렴해 신속하게 해결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발로 뛰는 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센터 직원들은 농가와 시범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도 실시한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문종도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장 중심의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